

시선

사설

선의와 성의

총장 선출을 두고 예상도 못한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총장후보추천과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라는, 지난해 구성된 합의안에는 없었던 의문의 단체가 등장하면서다.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대학이 관리위원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학내 구성원 단체들은 저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도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제도의 실행은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설명했다. 박 대행이 밝힌 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납득 못할 정도는 아니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은 적어도 경희대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구성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대학에게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선출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를 지원할 행정력은 분명 필요하다. 관리위원회라는, 구성원들이 가고자 하는 민주적 선출 과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름의 단체가 등장한 연유는 이러한 필요성이 낳은 시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박 대행이 입을 열었다고 해서, 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규정 안에서 행정지원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해서 구성원의 의혹이 불식될 리가 없다. 처음 보는 이질적 존재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에서 법인은 한 차례 학교를 내세우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려한 전적이 있다. 이 때 구성원들 안에 파리를 뜯은 의심은 또다시 법인이 대학을 내세우는 지금의 구도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슬뚜깅을 보고도 놀란다.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것은 침묵이다. 규정과 관리위원회를 두고 구성원 단체들이 연일 성명과 입장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들이 대상으로 지목한 법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유가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 때문에 의심한답니다. 의심이란 스스로 생겨나는 괴물 아니까요.” 셰익스피어 <오셀로>의 구절이다. 설명이 없으니 의혹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26일 교무위원회가 ‘축하연’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온 것을 그저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의심을 푸는 길은 하나다. 책임과 권한을 갖춘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풀어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정책토론과 공청회 등을 제외시킨 이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성, 초빙위원회의 존재 등 규정과 관련한 각종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왜 법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학에 의견수렴을 맡겼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건강한 논의를 방해한다. 논의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이를 믿지 못하는데 어떠한 논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박 대행은 인터뷰 말미에 좋은 총장을 선임해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자는 구성원의 선의를 믿는다고 답했다. 구성원의 선의를 믿는다면, 응답 이에 답해야 할 이도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대학은 지금

대학사회 민주주의, “불안정한 시기는 변화 꾀할 중요한 전환점”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서울대 학생회 보궐 선거가 열렸다.(일부 단과대에서 학생회 선거/대학신문, 2019.3.24.) 생활대 학생회 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그동안 네 차례나 선거가 무산돼 연석회의체제로 운영됐던 생활대는 이번 선거 무산으로 연석회의 체제를 이어간다. 자연대는 투표율 저조로 두 차례 연장투표를 진행했다. 연장투표 마지막 날인 3월 25일 개표 결과 총 투표율 50.64%로 선거 성사 기준을 달성해 단일선본 ‘바람’이 당선됐다.

서강대는 총학생회(총학) 강범석 회장 권한정지 후 양현우 임시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양현우 임시 의장에게 물다/서강학보, 2019.3.23.) 양 임시의



이 주의 주제 - 학내 교통·표지판 실태

‘경희랜드’의 명성을 이어나가려면



“최대한 주차 안내를 하지만 협조를 안 해줘 답답하다.” 총무팀은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다. 학기 중 서울캠퍼스 교통은 혼돈 그 자체다. 입학식 날부터 캠퍼스에 가득한 인파와 차량이 뒤섞인 모습은 소위 말하는 ‘경희랜드’의 환상을 깨버리기에 충분했다.

새내기 시절 어느 교수는 “우리 학교 어떤 것 같나?”라고 질문을 하고는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인간이 많아, 빠글빠글해”라며 불평 섞인 자답을 했다. 흠날리는 빗꽃에 흠뻑 젖지 못한 그 ‘빠글빠글’한 불평은 2학년이 되고 나자 보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우리학교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혼잡한 교통 상황은 고질병이었다.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두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총무팀만의 잘못일까. 주차요원들은 차량 안내를 위해 캠퍼스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행사가 있는 날이면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 주차요원들은 차량 운전자에게 교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말아달라고 안내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며 걷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큰 행사가 열릴 때면 학교 구성원들에게 차량

이용을 자제하라는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결국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캠퍼스 이곳저곳에 이중주차를 한다. 그 와중에 푸른솔 주차장은 자리가 남아도 거리가 멀어 운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누구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총무팀, 차량요일제나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에만 눈을 바코 확보하는 학생들 모두가 우리학교 교통 문제의 원인이었다.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 순간,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을까. 무작정 남 탓부터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를 취재하면서 ‘과연 경희대가 아름다운 캠퍼스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고려대의 넓은 캠퍼스는 인도와 차도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표지판이 있었다. 한국외대는 정문에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안내해 캠퍼스에서 차량을 보기 어려웠다. 경희랜드의 자부심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경희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그저 변명인줄로만 알았던 총무팀의 답변이 가진 의미에 대해 곱씹게 되는 취재였다.

아마 이번 달 중순부터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4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화여대에서 지난 26~27일에 학교-학생 정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총투표 ‘이화의 선택’이 진행됐다.(26일 총투표 시작 ‘이화의 선택’은?/이대학보, 2019.3.25.) 총투표는 지난해 학생회직 개정을 통해 새롭게 명시된 최고 의사결정 수단으로, 재학생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 가능하다. 총투표 핵심 요구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이화인 그룹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수강 신청 개선 및 분반 확충’,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고시반 지원’ 등이다.

중앙대 단과대학 보궐선거에서 자연대와 사과대 학생회장 보궐선거가 무산됐다.(단대선거 ‘삐걱’ 자연대·사과대 또 무산/중대신문, 2019.3.25.) 자연대는 지난 21일 연장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투표율 약 49.7%로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과대는 후보자 미등록으로 3월 보궐선거 일정이 취소됐다. 이로써 세 번째 선거 무산이다. 학생대표자 부재로 4월에 예정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도 차질이 예상된다.

훼손된 ‘연구 정신’ 찾아야할 ‘대학 정신’

세시봉

안수민 (기자)



다시 ‘부실학회’ 논란이다. 지난달 말엽, ‘BIT(비트)’라는 새 부실학회가 언론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비트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까지 학술 행사를 진행했으며, 471명의 한국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어 앞서 논란이 된 WASET(와셋)과 OMICS(오믹스)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흥역을 앓았던 대학가는 다시금 충격에 빠졌다.

부실학회는 지난해 7월, 와셋과 오믹스라는 이공계 허위 학회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문제시됐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한 학술대회를 뜻한다. 비용을 지불하면 논문 게재가 쉬워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학회에 의도적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정부 조사 결과 238개 대학교, 4대 과기원, 26개 연구소 중 약 4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참가 행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리학교도 부실학회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 15명의 연구자에 대한 감사가 확정됐다.

또다시 터져 나온 문제 속에서, 언제까지 연구자 스스로의 역량에만 일임해 부실학회를 판단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하여 Beall’s List(개인 제작 부실학회 명단)를 교수들에게 ‘안내’만 하고 있다. 이외에는 부실학회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응책은 없는 셈이다. 부실학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국가에 서조차 이를 쉽게 구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실수 혹은 모르고 부실학회에서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윤리 덕목을 지켜서 연구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똥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대학은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다. 대학은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논문의 수 중심이 아닌 질 위주로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부실학회 논란이 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문실적이 주로 양적 평가로 이뤄져서다. 연구자들은 논문 출판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연구비 수수 경쟁이 늘면서 부실학회에 모르고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지부진한 제도 마련 속에서, 최근 3년간 전 세계 부실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 중 한국 연구자의 논문 수는 결국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국가단위 R&D 예산이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기술을 도입한다는 나라에서 이러한 수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과학이 진리를 향하도록 연구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중대한 시점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휘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